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공부와 운동병행이라는 시대적 경향으로 인해 최근 달라진 체육계의 현상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 출신들의 고시합격이다.

논쟁이라면 보다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원의 마찰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 법 연구회' 문제가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검찰과 법원, 누가 반성해야 하나

신당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강기갑 민노당 대표, 피디수첩 사건은 모두 우리법 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선고했다.

법원이 어떤 집단인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치에 충실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기존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신당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강기갑 민노당 대표, 피디수첩 사건은 모두 우리법 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선고했다.

벗어나기 힘들다. 일반 판사가 선고한 7건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답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정치적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우리법 연구회'를 지칭한 적도 없고, 공격한 적도 없다.

법 연구회'와 이번 7대 무죄판결이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거대언론과 여당이다.

그동안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연결 약순환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겠는가. 이번 검찰과 법원의 논쟁에서 자기반성이 필요한 집단은 검찰이다.

"수십 년 검찰역사 속에서,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된 검사를 배출한 경험 없이는 검찰, 기소독점이라는 절대 권력을 소유했으면서도, 그 칼을 힘없는 백성과 집단에 겨냥 휘둘러온 검찰. 도쿄지검 특수부가 집권 민주당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정치 자금을 수사 중인데 비해,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는 검찰."

검사도 인간이기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면, 최소한 역사를 두려워 할 줄도 알아야 한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조선대 정상화 흔드는 사학분쟁조정위

조선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 9명 가운데 결원 상태인 2명의 추가 선임문제를 놓고 총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와 사분위의 이러한 총출 양상은 대학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면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제2의 학내분규도 우려돼 걱정이 앞선다.

사실 22년에 걸친 조선대 정상화 문제는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 비록 임시(관선)이사 체제였지만 교수와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나서 초유의 학내사태를 털어내고 안정 속에 발전을 지속해왔음에도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이사 체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교과부다.

교과부와 사분위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재래시장 상품권 등장대처 한심하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돼 온 '은누리 상품권'이 설을 코앞에 앞두고 광주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지역 상인들이 울상이다.

광주시와 중기청은 은누리 상품권을 지난해 말까지 발행키로 하고 전국상인연합회에 20억원어치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예초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올 설에 상품권으로 3억원어치의 은누리 상품권을 판매키로 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 대학 등에 구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었다.

이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중기청과 광주시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래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신곤



응급 출혈한 이 지역 여자 구급대원이 술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미국 유학 한 젊은이들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생고생을 치른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다.

술 취한 환자 대처법

고, 술 취한 행동에 관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힘든 농사일 중에도 그렇고, 추수 뒤 끝이나 명절, 제사 등 각종 잔치와 모임에 술은 필수물이었다.

요하다. 술 취한 사람은 저온증으로 심장마비가 잘 오고, 간경변이나 간암을 동반할 수 있고, 상해 등 병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술에 취하면 오래 119에 전화하는 상습법, 술만 취하면 안방 드나들 듯 응급실 찾아 멋대로 구는 이들, 파출소에서 "우리의 세금은 주체에, 민중의 지팡이" 운운하며 온갖 난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치료' 받아야 한다.

이들이 끼치는 피해는 본인이나 주위 뿐 아니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으니 말이다.

<상무병원 외과 명예원장>

기고

장경택



대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통하여 국민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에 격려와 박수를

변마다 삼성의 대형 간판이 첫눈에 들어와 반가움과 자부심을 넘어 애국심마저 느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큰 기업이 되었고 영국왕실에서 사용하는 품목으로 삼성냉장고를 구입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앞 다투어 우리 지역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삼성냉장고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광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설립된 미소금융은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상태로 은행 등 금융회사

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속제 사이트 찾는 학생들 세태 한심

를 하는 표정이었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방에 모여있었다. 잠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녀석들이 찾아서 쓰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독서감상문이 서비스되는 사이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슨 속제냐고 문자 예상했던 대로 독서감상문을 써야 하는데 책을 다 읽기 어려워 자기네들이 읽어야 하는 책의 독서감상문이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를 여러가지 뒤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최근 설립된 미소금융은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상태로 은행 등 금융회사

졸업식에 밀가루 투척 등 지나친 일탈행동 삼가야

2월은 졸업의 계절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졸업식 하면 가족, 친구, 학교 선배들의 축하 꽃다발을 받고 정든 교정을 배경 삼아 기념 사진촬영을 했는데 요즘 졸업식에서는 이런 추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교복 찢기를 하지 못하도록 '교복 돌려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졸업행사를 추진하여 험기래, 밀가루 투척 등 일탈행동이나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여 졸업생들에게 추억이 묻어가는 아름다운 졸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준철·광주시 남구 백운2동

속제 사이트 찾는 학생들 세태 한심

를 하는 표정이었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방에 모여있었다. 잠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녀석들이 찾아서 쓰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독서감상문이 서비스되는 사이트였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속제 사이트 찾는 학생들 세태 한심

를 하는 표정이었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방에 모여있었다. 잠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녀석들이 찾아서 쓰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독서감상문이 서비스되는 사이트였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無等鼓

단맛만큼 뿌리치기 힘든 것도 없다. 몸이 피곤할 때는 더 당긴다. 에너지원을 소진하면 혈액 속의 당분 농도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

추정된다. 1920년 평양에 무설탕 공장이 국내 최초로 들어섰다.

설탕대란



설탕(雪糖)은 눈처럼 하얀 빛깔에서, 영어 '슈거(sugar)'는 산스크리트어 '사카라(sakkara)'에서 나왔다.

당 30.4센트로 치솟았다. 29년 만의 최고치다. 유럽연합은 이때다 싶어 규정한 세계 영국에선 노동자들도 흥취에 설탕을 넣어 즐기게 됐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본부장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